

## 2018년 3월 25일 “찾아오신 예수님(47) 다 이루시다”(요 19:26-37)

### <도입>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사용하는 7 가지 상징 중 마지막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1. 마리아와 제자
2. 십자가 세 말씀
3.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

### [1]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요한)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마리아는 구주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도 독특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앞서 두 죄수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이에 계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두 존재를 새롭게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여자여(경칭)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네 어머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새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인간, 모두 하나가 됩니다.

### [2] 세 가지 말씀(26, 28, 30 절)

첫째, ‘**여자여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수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르는 30 년 간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눅 2:41** 이하. 예수님 12 세 때 유월절 성전 사건.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 듣기도 묻기도 하느라고 사흘을 지난 후 부모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 2 장** 가나 혼인잔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모자 간의 관계는 남다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26 절은 30 년 간의 모자 관계를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르시면서 가능하셨겠지만 아들이 지금 서야할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을 아시지요?’라고 자신의 구속 사역의 종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와 교감하며 죽음을 함께 애통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28 절). 지금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의 막바지에 왔음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은 인간으로서 겪고 계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겪고 있고, 겪어야 할 고통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 내적, 외적, 환경적, 시대적 고난은 모든 세대에 모든 이에게 가득합니다. 자기 고통이 제일 큰 법이지만 개인적 차원을 떠나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고통을 지십니다.

**히 2:17**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고통은 사람들의 고통과 더 나아가 자녀들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고통 또한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말미암아 고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직면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억울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뜻을 따른 순종이 고난의 극심함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번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게 하는 모든 조건을 당신의 삶 안에서 온전히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겐 그분과 동일한 유업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교두보를 이 땅에 확보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교두보가 필요한 이유는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고, 사람을 향한 아버지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 [3]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물과 피

마지막 상징은 주님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입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생명이 거듭나게 서로 간에 흐르게 하십니다. 피는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옛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받게 한 피였습니다. 예수님(어린양 - 요 1:29)의 피는 영생 주시는 구원의 피입니다. 물과 피를 주시는 구주로서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한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비탄 정죄로부터 해방; 진리 안에서 자유; 소망을 향해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의미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약하고 고난 받고 죽으신 분이 우리 구원주, 맞습니다.

#### <맺음>

십자가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며 묵상할 때 내 안에 차오르는 감동과 확신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물과 피, 생명과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마지막 장면은 모자간 아픈 사별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들로서의 본분과 구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신 예수님의 말씀(v.26)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봅시다.
2.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온전한 조건이란 무엇입니까(히 2:10, 5:8 참고)? 그 조건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봅시다.
3. 예수님에게서 흐른 물과 피가 상징하는 바를 다시 새겨 봅시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삶이 어떤 측면에서 온전하여 질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는 교안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